AI시대 명상 가치 조명…국내외 석학 동국대 집결

동국대 종학연구소, 9월 17~18일 명상국제콘퍼런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학술 행사
수불 · 용타 스님, 수행론 전해
미나스 카파토스 등 석학 참여
과학 · 웰니스서 명상 가치 조명
18일 '심우도' 주제 선명상 콘서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을 바꾸는 시대에 명상이 지닌 인간 내면의 성찰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일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와 선명상콘서트의 세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202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대주제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동국대 본관 남산홀과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콘퍼런스 첫날인 9월 17일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세 차례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개막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김지원 BTN 아나운서의 사회로 선지식과 세계 석학의 강연이 이어진다.

안국선원장이자 동국대 석좌교수인 수불 스님은 'AI시대, 왜 다시 간화선인가?'를 주제로 강연하며, 양자물리학 석학인 미나스 카파토스 채프먼대 전산물리학 석좌교수는 '마음의 본질'을 전한다. 세계적인 율학 전문가인 사사키 시즈카 하나조노대 특별교수는 'AI 사회에서의 불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술사회에서 불교가 지닌 의미를 조명한다. 사사키 교수는 〈과학의 불교〉 〈인터넷 카르마〉 등의 저술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둘째 날인 9월 18일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다섯 차례 발표가 이어진다. 사회는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이 맡는다.

재단법인 행복마을 회주 용타 스님은 '부처님과 해오(解悟)주의'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방글라데시 가야나사라나 불교산림사원 주지이자 비폭력 평화운동가인 사라낭까르 스님이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내면의 평화 구축-명상과 자비의 역할'을 발표한다.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과 로드아일랜드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툽텐 텐다르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자비 교육의 효과'를 주제로 자비교육의 적용과 효과를 소개한다.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은 '한국 명상이 나아갈 길을 묻다-전통 불교명상과 현대 마음챙김의 대화'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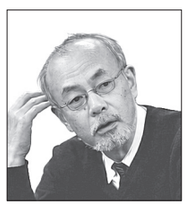
마지막 발표자인 유기준 상지대 명예교수는 '담마 웰니스-불확실성 시대, 불교와 웰니스가 함께 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제로 불교와 웰니스의 접점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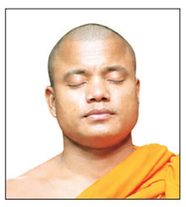
콘퍼런스가 끝난 직후 9월 18일 오후 4시 3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6 국제선명상콘서트-심우(尋牛), 마음을 찾아 함께 깨어나다'가 열린다. '소리를 따라, 빛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를 부제로 한 공연은 심우도의 수행 여정을 전통음악과 현대음악, 명상, 서예, 미디어아트 등으로 구현한다.


수불 스님


용타 스님


미나스 카파토스


사사키 시즈카


사라낭까르 스님


툽텐 텐다르


안희영


유기준

공연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가는 심우도의 여정을 심우(尋牛)·견적(見跡)·견우(見牛)·목우(牧牛)·입전수수(入廛垂手)의 다섯 단계로 구성한다. 마음을 찾아 나서고, 흔적을 발견하고, 마음을 마주한 뒤 길들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음악과 소리, 침묵으로 표현한다.

프롤로그에서는 공림 스님의 법고와 용희진의 '공' 공연으로 '적멸의 울림, 내면의 고요로 향하는 길'을 선보인다. '심우'에서는 플루트 연주가인 기원 스님이 '볼레로'를 , '견적'에서는 이현아 가야금 연주자와 임시현 서예가가 '정취'라는 공연을 선보인다.

'견우'에서는 전통음악과 명상을 결합한 예술단체 '숲의 그림자'가 생황·양금·가야금·싱잉볼 등을 통해 '달무리', '잔잔한 호수', '하나의 울림' 등을 공연하며 목우에서는 기원 스님이 'G선상의 아리아'를 전한다. '입전수수'에서는 조계종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가 '차 한 잔 마셔요'와 '마음을 바라봐요'를 선보이며 출연진이 함께 하는 '빛나는 마음'으로 공연을 회향한다.

인경 스님과 진정 스님은 명상지도자로 참여해 관객의 호흡과 소리 알아차림을 안내한다. 관객은 음악을 감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소리와 침묵을 따라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듣는 수행'에 참여하게 된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명상체험부스에 이어 명상콘퍼런스와 선명상콘서트로 계속된다"며 "콘퍼런스에서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과 '웰니스적 선명상의 가치'를 주제로 이틀간 논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선명상콘서트에 대해서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데 중점을 뒀던 이전 행사와 달리 올해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구성했다"며 "선과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이들이 참여해 '마음을 찾아서 떠나는 심우도'를 주제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㊺ 육결일해(六結一解)

얽힌 매듭을 푸는 비법

六 結 一 解

〈능엄경(楞嚴經)〉 제5권에는 마음의 번뇌와 해탈의 원리를 일깨우는 명쾌한 비유가 나온다. 부처님께서 시자 아난 앞에 부드러운 비단 수건 한 장을 펼쳐 보이셨다. 그리고 아난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건의 한쪽을 잡아 첫 번째 매듭을 묶고, 이어 차례로 여섯 번째 매듭까지 묶으셨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이 매듭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겠느냐?"

아난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매듭은 순서대로 묶였으므로 풀 때도 묶인 역순으로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또한 매듭이 어떻게 묶였는지 그 결을 잘 아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육결일해(六結一解)'의 비유다. 부처님께서 묶으신 여섯 매듭은 우리의 여섯 감각기관, 곧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육근(六根)을 상징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감각의 통로는 본래 맑고 자유롭다. 그러나 눈앞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겨 집착과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마음에는 번뇌의 매듭이 생겨난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극적인 정보에 눈이 붙들리고, 타인의 평가에 귀가 흔들리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념에 마음이 매인다. 감각이 바깥을 향해 열려 있을수록 외부의 작은 바람에도 삶 전체가 흔들린다. 마음의 혼란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매듭은 단단해진다. 먼저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매듭이 사람으로 인해 묶였으니, 풀어내는 것 또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結由因人 解亦在人)."

나를 묶은 것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을 대하는 내 마음이 스스로 매듭을 지은 것이다.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바깥으로만 향하던 감각을 거두어들이고 내면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눈과 귀로 들어오는 자극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안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아야 한다. 어디에서 집착이 생겨나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흔드는지를 하나씩 알아차리다 보면 단단히 조여 있던 마음의 매듭도 조금씩 느슨해진다.

〈쌍윳따 니까야〉에서도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수행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수행자가 감각기능을 단속하는가?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표상(전체적 특징)에 취하지 않고 세부적인 특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만일 눈의 감각기능을 단속하지 않고 머문다면 탐욕과 근심이라는 악하고 불선한 법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묶인 마음은 하나씩 풀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묶이지 않는 것이다. 〈회순 불암사 주지〉

불중박,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현장교육

9월 16~17일 경주 일원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스님)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일원에서 '2026년도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소장자·관리자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다량소장처 사찰의 스님과 문화유산 소장자·관리자들이 문화유산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역사적 가치와 전승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보존·관리 업무와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경주 남산과 분황사·황룡사지, 국립경주박물관을 차례로 답사하며 불교문화유산이 형성된 역사적·공간적 배경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오늘날 어떻게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것인지 현장에서 함께 살펴본다.

9월 16일에는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와 함께 경주 남산 삼릉계곡 일대에 분포한 불교 유적을 직접 답사하며 신라 불교문화의 역사적 의미와 자연환경 속에 조성된 불교문화유산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현장답사 이후에는 교육 참가자들이 각 다량소장처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9월 17일에는 분황사와 황룡사지를 찾아 신라 왕경의 불교문화와 사찰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와 특별전 '황룡사, 부처의 사리를 모시다'를 관람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현장에서 얻은 이해와 경험을 각 다량 소장처의 보존·관리 업무에 적용해 문화유산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재

마음의 평화, 가족의 행복,
소중한 인연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일간의 기도

■ 입 재 | 2026년 9월 6일(일) 오전 9시 30분 (진관사 함월당)
■ 회 향 | 2026년 10월 24일(토)~25일(일) 오전 9시 30분
(진관사 대웅전 야단법석)
■ 기도접수 | 02-359-8410

교통편 | 기도기간 중, 연신내역(3호선)에서 진관사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평일 오전 9시~10시 / 일요일 오전 8시~11시)

진관사 수륙재 기간 동안
매주 일요일 칠칠재가 봉행되며,
큰스님 법문이 있습니다.


칠재[회향] 10. 24 토요일
성파 종정예하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무량무변 세계 중에
극락세계가 제일이라


입재 9. 6 일요일
법산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장
인생 총론:
세상 공부, 부처님 공부


초재 9. 13 일요일
혜국 큰스님 석종사 조실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다


이재 9. 20 일요일
종범 큰스님 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우리 시대의 용서와 화해:
慈能與樂 悲能拔苦


삼재 9. 27 일요일
본각 큰스님 전국비구니회 원로회의 의장
큰 사람을 작게 하고 작은 사람을 크게 하는 법


사재 10. 4 일요일
자광 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장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사람처럼 잘 사는 법


오재 10. 11 일요일
보선 큰스님 해남 대흥사 조실
함께 가는 길: 同行和敬


육재 10. 18 일요일
성우 큰스님 전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가족을 이루는 큰 인연과 공덕

